

K-POP 스타들 정읍에 모였다

지난 12과 13일 정읍 종합경기장에서 SBS와 함께하는 '2019 K-POP 1박 2일 CONCERT'가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공연으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정읍방문의 해와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평소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지역의 젊은 층에게 문화적 수혜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지난 12일과 13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콘서트에는 유진섭 시장과 주요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2만5000여 명의 관객들이 함께했다.

공연에는 국내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과 한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 'K-POP 1박 2일 콘서트'

모모랜드·아스트로 등 유명 아이돌 공연에 폭발적 호응 이어져

류를 이끄는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화려한 공연으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먼저 콘서트 첫날인 12일에는 SBS 파워FM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두시 탈출 킷쇼'의 김태균과 가수 전소미가 MC로 나섰다.

이날은 아스트로와 제시, 다이아, 에일리, 모모랜드, 매드클라운, 톱키즈, 송유빈, 김국현 등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이른바 '핫'한 가수들이 출연해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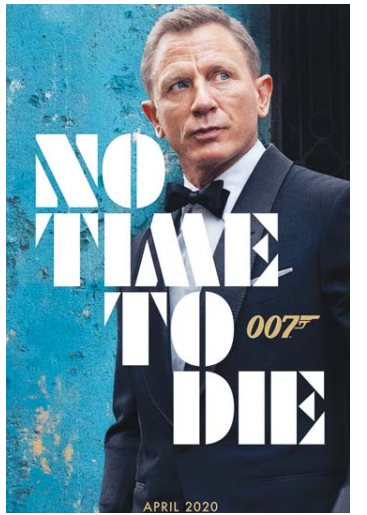
냈다. 이어 13일에는 SBS 러브FM의 낮 시간대를 책임지고 있는 '나르사의 아브라카다브라'의 나르사가 개그맨 박성광과 함께 MC를 맡았다.

이와 함께 데이브레이크와 딕펄스, 리본, 공원소녀, SF9, 체리블렛, 슬리피, 앤씨아, KCM까지 총 9팀의 스타가 출연해 강렬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였다.

이번 콘서트는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케이팝 무대를 통해 가을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관객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특히, 공연이 끝나고 10분 동안 펼쳐진 불꽃놀이와 가을밤 하늘을 수놓는 장관을 연출하며 콘서트의 끝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내장산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 아름다운 계절에 대한민국 최고의 K-POP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시민들이 K-POP을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는 물론 전국에 정읍을 알려 지역의 문화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007 노 타임 투 다이'

첫 글로벌 이미지 공개

주연은 다니엘 크레이그

'007 노 타임 투 다이'가 첫 번째 글로벌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미지는 본드 역의 다니엘 크레이그가 007의 시그니처인 턱시도와 보타이를 한 클래식하면서도 날카로운 모습과 표정으로 전세계 영화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더 불어 이미지를 가득 채운 'NO TIME TO DIE'라는 타이틀은 이번 시리즈만의 의미심장한 메시지와 스토리 전개를 예견케 한다.

다니엘 크레이그는 2006년부터 '007 카지노 로얄'(2006), '007 퀴엠티 오브 슬러스'(2008), '007 스카이폴'(2012), '007 스펙터'(2015)에 이어 5년 만에 컴백한다.

이번 작품은 다니엘 크레이그, 라미 말렉, 등의 초호화 라인업을 완성했으며 '그것' 각본을 쓴 캐리 후쿠나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내년 4월 초 개봉 예정. /뉴시스

EXID 출신 하니, 써브라임

아티스트에이전시와 계약

그룹 'EXID' 출신 하니가 써브라임아티스트에이전시와 손잡았다.

써브라임아티스트에이전시는 "하니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하니는 2012년 EXID 멤버로 데뷔했다. 그는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감독 이환) 촬영에 한창이다. /뉴시스



중동, 새로운 K-POP 한류 중심지

중동에서 K팝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화룡점정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킹 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의 하나로 공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아랍권 가수 최초로 여는 스타디움 투어다. 스타디움 투어는 4,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에서의 공연을 가리킨다.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은 약 6만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컨퍼런스센터 스포츠 시설 결승전 등이 이곳에서 열렸다.

방탄소년단 공연 소식이 알려지자 직후 좌석은 단숨에 매진됐다. 무대에 가까운 플로어석 티켓은 온라인에 100만원이상에 거래되기도 했다. 공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문화개방과 맞물린 K팝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중동 콘텐츠산업 동향'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메나(MENA) 지역에서 가장 급변하고 있는 국가다. 메나는 중동(Middle East)과 북아프리카(North Africa)의 합성어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이 속해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국제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원유, 원유 유관 산업이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중심으로 원유에 집중된 경제·사회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현지에서 일고 있다. 비전 2030 이니셔티브가 대표적이다. 왕위 계승자인 살만

방탄소년단, 사우디서 스타디움 공연

16일 두바이 한류박람회 등 이어질 듯

왕세자는 지난 6월 방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특히 한국과 K팝계가 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 이니셔티브 항목에서 주목하는 항목이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 대해 다방면의 육성 계획'이다.

영화관 개관, 콘서트 개최 등 개방 확대방안이 포함돼 있다. 지난 7월 K팝 그룹 '슈퍼주니어'가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도시인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펼친 것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한류 콘텐츠 탄력 불을 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류를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배우 이영애 주연 드라마 '내장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내장금'을 봤다. 이후 TV 콘텐츠는 더빙 위주로 현지에 소개됐다.

한문진은 "최근 테마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단지 개발이 폭증함에 따라 국내 아카데미 게임 및 실감형 콘텐츠 기업도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진출을 노려볼 만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현지의 음악 공연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K팝의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를 비롯 민간기업에서 국내 톱 K팝 그룹 콘서트를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K팝 톱 그룹들이 바로 슈퍼주니어, 방탄소년단이며 다른 팀들도 불발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K팝 그룹의 중동 진출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또 방탄소년단, 슈퍼주니어 같은 대형 K팝 그룹에 국한된 것만도 아니다.

그룹 '비이지'(B.I.G)는 아랍권에서 주목 받는 K팝 그룹이다. 더 파이브(The 5)의 '라 비자프(La Bezzaf)' 등 아랍 대중음악계 유명곡 커버 영상으로 현지에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자신들의 곡 '헬로 헬로(Hello Hello)'의 아랍어 버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 당시 참석한 청와대 공식 오찬에 초대됐다.

K팝을 비롯 중동에서 한류 콘텐츠를 대거 선보이는 '두바이 한류박람회'도 기대를 모은다. 콘진원과 KOTRA가 공동주관하는 박람회로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UAE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펼쳐진다.

두바이에서 처음 열리는 한류박람회로 최근 중동지역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흐름에 맞춰 열리게 됐다.

배우 하지원, 그룹 '세븐틴'과 'SF9'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하지원은 중동 최대 위성 TV채널 MBC를 통해 드라마 '기황후'가 방송돼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다. 세븐틴과 SF9은 행사 기간 두바이에서 첫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다.

콘진원 김영준 원장은 "중동지역은 드라마, K팝 뷰티 등 한국 콘텐츠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한류 열풍이 뜨거운 지역 중 하나다. 이번 두바이 한류박람회를 통해 한류 콘텐츠가 확산되고 나아가 양국의 활발한 문화적, 경제적 교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자연정신과 서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9. 10.12. 토 - 11.10. 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예술의전당 등 14개 시·군

제12회 2019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9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서예는 행운을 싣고	로비
서예비상전	갤러리-S
서화용화전	
자연과 서예, 그리고 붓	갤러리-O
서예도를 밝히다 (자연정신 & 서예)	
작가와와 만남	갤러리-O, R, R로
시·서·화전	
탁본체험	갤러리-R (로비)
나도 서예가	
전각전 (철필로 쓴 맛.맛.미)	
서예견인전	갤러리-R
서·화·각·도자전	
서예야 놀자!	
전북예찬 시문서예전	갤러리-I
명사서예전	
서각체험실	야 외
서예도서전	
학술행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전북예술회관	대한민국학생서예전 해외동포교향상전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기념공모전
국립전주박물관	석전 황욱전
강암서예관	석정 이정직 특별전 (2019년 11월 24일 까지)
한국전통문화의전당	강암 송성용전
고동미술관	한형서택전 (2019년 10월 12일~10월 18일) 전북현대서각회전 (2019년 10월 22일~10월 27일)

The Natural Spirit and Calligraphy

2019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2019. 10.12. SAT - 11.10. SUN

Sori Arts Center of Jeollabuk-do, Jeollabuk-do Arts Center, The 14 Cities and Counties

Argentina · Brazil · Brunel · Canada · China · D.P.R.K · France · Germany · HongKong · India · Indonesia · Italy · Japan · Mexico · New Zealand · Philippines · Russian · Singapore · Switzerland · Taiwan · U.S.A · Korea